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 서울 사랑의 교회 및 일반사례를 중심으로 —

조재신¹⁾, 정봉현²⁾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발전방향을 취급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교회 및 교계 제자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회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종합적 시행방향과 제자훈련 모델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제자훈련의 이론적 고찰, 교회 및 교계 제자훈련의 문제점,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발전방향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자훈련의 문제점들은 대략 교역자의 시간부족, 평신도의 영적성장 부담, 다수 교인의 실망과 불평, 기도의 부족, 훈련자의 신앙성숙 미흡, 제자훈련의 남녀 간 불균형, 제자훈련의 압박감 등으로 드러난다.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유지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자훈련의 시행방향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는 교회의 영적토양 중시, 사역과 재생산과정 포함, 제자훈련과 성령사역 연계, 평신도사역의 활성화, 소그룹의 적극적 활용 및 예수님의 제자 육성, 비전설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모델의 발전방향은 제자훈련의 목표, 제자훈련의 열매비전, 재생산적 사역훈련, 제자훈련의 활용 및 제자훈련의 모델정립 등을 고려하여 강구할 수 있다.

1) 전남대학교 교수(주저자).

2) 전남대학교 교수(교신저자).

주제어 : 교회성장, 제자훈련 발전방향, 제자훈련, 평신도 훈련, 사랑의 교회

I. 서론

교회성장은 목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목회자의 소망이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장의 쇠퇴기에 놓여 있으며, 교회성장에 부담을 안고 있다. 교회성장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균형있는 발전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면 양적 성장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건강한 환경만 만들어 주면, 교회는 성장하기 마련이다.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목회환경의 핵심은 “변화된 사람” 즉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육성된 평신도 제자이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이 증가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때 건강성이 회복되며 성장한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육성과 파송이 교회에 부여된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제자를 삼는 일은 주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에서 보았듯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예수님의 전략이다. 다수의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치중하나, 진정한 예수님제자의 양육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목회자는 예배중심의 목회활동으로 1주간 분주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제자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 중심의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과 질타도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를 육성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전도된 영혼들이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훈련과정이 교회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상기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 연구는 우선적으로 제자훈련의 기본이론을 파악하고,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은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종합적 시행방향과 제자훈련 모델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중요내용은 제자훈련의 이론적 고찰,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운영과 문제점,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발전방향 및 결론으로 구성되고 있다. 사랑의 교회는 교회의 대표성, 사례지역의 타당성 및 자료수집의 용이성 측면에서 선정되었다. 연구는 성경내용의 조사, 기존 관련 연구문헌의 이론적 고찰 및 일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II. 제자훈련의 이론적 고찰

1. 제자훈련의 개념과 필요성

(1) 제자훈련의 개념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교훈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다. 훈련은 일정한 목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 교육활동이다. 제자훈련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제시한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교육활동이다(네이버국어사전). 빌허(Bill Hull)은 제자훈련은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상호책임성을 가지고 의도적인 목표를 두면서 제자를 길러내는 훈련”이라 말한다(장석천, 2009: 33). 제자훈

련은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며, 전도와 가르침에 유능한 평신도를 육성하는 과정도 아니다(옥한흠, 1999: 186).

제자훈련은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Ogden, 2007: 203-206). ① 의도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제자훈련의 참석자가 시간계획을 세워 만남을 갖는 것이다. ② 제자 간 동등한 관계이다. 이것은 상호간에 생활이 어울리는 대등한 소통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랑의 관계이다. 제자훈련의 참석자는 겸손히 섬기고 서로 사랑한다. ④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성장한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하며 성숙한 신자로 장성한다. ⑤ 타인을 가르치도록 준비시킨다.

(2) 제자훈련의 필요성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근본이유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마 28:19-20).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훈련하였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변화 및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소수를 찾고 있다(사 60:22). 제자훈련은 소수 정예화의 전략이며, 소수로 다수를 동력화시키는 작전이다.

현대교회에서 제자훈련은 성도의 형식적, 위선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필요하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적으로 교회는 외연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어 신앙의 영성훈련에는 소홀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신자로서 현대의 직장과 사회에서 미치는 기독교의 순영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제자훈련은 성숙한 성도를 육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미 교회성도가 증가했음에도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부족한데 기인할 것이다(서정운,

1984: 29). 따라서 제자훈련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2. 제자훈련의 목적

제자훈련은 평신도 대상의 단순한 성경교육 프로그램, 혹은 기능적인 성경전문교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공부는 제자훈련의 수단이나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였고 각 사람을 권하며 가르친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한다(골 1:28).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성숙한 삶을 생산하며, 영적으로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성도를 양육하는 데 있다(최선화, 2005: 11).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성도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의 인격 및 사역적인 면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구주 및 왕으로 영접하여 따르고 배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 따라서 제자훈련은 훈련자와 훈련생이 모두 예수님을 닮기 위한 영적인 교육활동이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작업이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엡 4:12). 이러한 실질적인 유익과 효과를 위해서 많은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여 파송해야 한다.

3. 제자훈련의 성서적 의미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 뿌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볼 수 있고, 신·구약의 제자들은 성경적인 제자로서 구약에 근원을 두고 있다. 구약성경에 있는 제자훈련의 사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선지자 생도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델에서 본다. 신약 복음서의 제자도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 제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로, 마가복음에서 ‘섬기는 자’로 언급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며 대가를 치르는 자’로,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으로 말씀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맺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는 ‘모든 믿는 자’를 제자로 칭하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교회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는 자임을 강조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는 12명의 제자를 삼는 사역이다³⁾.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사랑으로 훈련을 시키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육성하는 훈련목표를 갖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언어는 물론, 사건, 자연과 기적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시키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소수를 선택하여 자신과 같은 제자를 다시 육성하는 재생산의 사역에 집중되었다(요 20:21). 바울 제자훈련의 핵심은 예수님 그리스도였고 자신의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제자를 훈련했다(행 2:4-7). 그 훈련의 목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온전한 사람으로 굳게 서는 것이었다. 바울이 행한 제자훈련의 원리는 예수님의 소수집중 및 재생산의 원리였으며 영적 부모로서 제자를 훈련했다(히 9:9, 23-24).

상기한 신·구약에서 나타난 제자도와 제자훈련을 통하여 제자도와 제자훈련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자도와 제자훈련은 분명히 성격적인 의미를 가지며 오늘날 교회의 제자훈련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

3) 정종진(2005), p.20.

한다. 현대 교회가 사회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서적인 제자훈련을 교회의 사역현장에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성서적인 제자훈련을 오늘날 교회 목회사역에 더욱 지혜롭게 적용하는 전략수립과 실천이 아주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정종진, 2005: 20).

구분	세부적 내용
속성	◆의도적 관계, 제자 간 동등관계, 사랑의 관계, 성숙한 신앙, 육성 준비
목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영위, 제자육성의 성도 양육
필요성	◆성숙한 영적성도의 육성, 전도의 소수화·효율화 전략, 교회의 질적 성장 유도

<표1> 제자훈련의 이론적 개요(서정운 역, 1984: 211)

III. 사랑의 교회 소개와 교계 제자훈련의 문제점

1. 사랑의 교회 연혁과 목회철학

(1) 사랑의 교회 연혁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 훈련, 젊은이 선교, 북방선교라는 창립비전을 갖고 1978년 7월에 창립되었다. 1981년에 강남은평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로 개칭하고 1983년에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리었다. 1984년에 평신도 신앙강좌, 1986년에 제1기 제자훈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89년에 일본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 1995년에 제1기 평신도 선교학교와 대학 청년 교역자 세미나를 열었다. 2000년에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고 2003년에 국제제자훈련원의 착공과 오정현 목사의 부임이 이루어졌다. 2004-2005년 동안에 특별새별부흥회가 활성화되었고, 2007년에 새생명

축제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2008년에 사랑의 교회선교관이 개장되었으며 2009년 새성전 건축의 시작, 2010년에는 옥한흠 원로목사가 소천하였다. 2013년에는 서초구의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였다.

(2) 사랑의 교회 목회철학

사랑의 교회 창립자인 옥한흠 목사는 설립초기부터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시켰다. 그는 평신도 훈련목회의 비전을 갖고 미국 유학시절부터 그의 역량을 키어왔다. 옥한흠목사는 평신도 목회훈련에 대한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져서 평신도 목회방법에 중점을 두고 제자훈련에 최선을 다하였다.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되어 하나님을 실천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비전을 삼고 있다.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명에는 가르치는 제자공동체, 치유하는 생명공동체, 예배하는 예배공동체, 세상을 품는 섬김공동체, 전파하는 증인공동체 등 5대 사명들이 제시되어 있다(<http://www.sarang.org>). 옥한흠 목사는 “종교개혁이 하나님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평신도운동은 세상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옥한흠, 2009: 35)는 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이야말로 왜곡된 교회론의 개혁을 도모하는 지름길을 강조한다(박응규, 2013: 129).

2. 제자·사역훈련의 개요와 내용

제자훈련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훈련 목회철학의 기반위에 세워져 있다. 제자훈련은 내적훈련과 외적 훈련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내적훈련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실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훈련이다. 외적인 훈련은 타인에게 전도하고 사회에서 섬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훈련이다.

구분	세부적 내용
기본성격	◆성격 - 훈련사역의 핵심, 평신도 지도자 양육 프로그램
교육내용	◆내용 - 제자훈련의 기초, 구원의 진리 터득,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의 정립
기간, 장소	◆기간 - 32주 과정 매년 2월초-3월초 ◆장소 - 각 반별 장소
교육시간	◆남 제자반 (주일 or 목요일 오후 or 토요일 오전), ◆여제자반 (목요일 오전 or 수요일 오전) ◆여자 직장인반 (화요일 오후 or 토요일 오후)
교육대상	◆교회등록 1년 이상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자, 새가족 모임의 수료자 ◆양육세미나 이수자, 연령 34-58세 일반제자반, 59세 이상 포에버 제자반 ◆다락방 1년 이상 참석자, 봉사사역 순종자, 훈련 헌신자와 순종의 감당자 ◆배우자 허락과 순장의 추천자, 훈련장소 자택제공자, 건강과 직업소유자

<표2> 제자훈련의 개요와 내용(<http://www.sarang.org>)

제자훈련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무사안일, 이원론적 및 무능력 의 신앙자세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제자훈련의 근본은 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32주 과정으로 실시되어진다. 특히 이 훈련은 가르치는 양육순장의 은사가 있는 자를 선발하여 훈련시킨다. 이 훈련에서는 다시 한 번 삶의 변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제자훈련은 사랑의 교회 훈련사역의 핵심이며 평신도 지도자 양

육프로그래이다.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에 평신도는 지도자의 자아상을 정립한다. 사역 훈련에서는 실제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체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재발견하고 사역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역훈련은 사랑의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처럼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다. 제자훈련 이수자 중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성도는 말씀으로 교회 내 사역을 담당한다. 이 훈련은 사역을 위한 훈련으로 강도 있게 진행되며, 제자훈련에서 해결되지 못한 신앙의 문제점을 해결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이창진, 2010: 51-55).

구 분	세부적 내용
기본성격	◆성격 - 사역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 양육순장의 파송 사역
교육내용	◆내용 - 새 생활의 열쇠(성령),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소그룹 모임과 리더십, 신구약의 주제와 내용
기간, 장소	◆기간 - 32주 과정 매년 2월초-3월초 ◆장소 - 각 반별 장소
교육시간	◆남사역반 (주일 or 목요일 저녁), ◆여사역반 (수요일 or 목요일 오전), 여자 직장인반 (화요일 오후)
교육대상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수료자

<표3> 사역훈련의 개요와 내용(<http://www.sarang.org>)

3. 제자훈련 교육의 문제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문제점들은 운영과 체계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김영춘, 2006: 49-52). ① 교역자의 시간부족 문제이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역자는 이에 사역임무를 치중하게 된다. 정보

화 및 세계화의 시대에 교회 성도들은 교회환경 변화에 다양한 요구를 하며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 평소에 목회자는 제자훈련 및 교회의 다른 사역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려우며 시간도 부족하다. ② 평신도의 영적 성장에 대한 부담이다. 평신도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영적 성장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영적으로 어린 평신도에게 만족한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식형 성도는 영적 성장이 적다고 느껴지는 목회자에게 불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는 평신도를 지적 및 영적으로 일정한 수준 하에 두려는 경향도 있다. ③ 다수 교인의 실망과 불평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와 무리들을 잘 관리하고 만족시키었다. 그러나 인간인 목회자는 교인 다수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목회자가 소수의 특징인 훈련에 치중하고 편애하는 인상을 주면, 다수의 교인에게는 상실감이 생겨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④ 성경공부에 비하여 기도능력이 부족하다. 교회에서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 초대교회의 성도는 기도에 집중하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기도에 더욱 전념하는 것이다. 성경공부와 기도는 하나로서 제자훈련은 기도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⑤ 제자훈련의 이수자가 미성숙한 신앙행태를 보인다. 제자훈련 수료자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에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하다.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면, 다른 교인들을 불신하고 서로 간 비교 및 비평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이것은 교회의 분열이나 분파를 조장하고 제자훈련 이수자와 미이수자 간에 성도간 교제가 안 되고 격리감이 발생한다. ⑥ 제자훈련의 남녀 불균형 문제이다. 제자훈련의 참가자는 여성이 많아 남녀 성도 간 영적 수준의 차이가 크며, 이로 인해 교회사역이 여성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남자 성도가 직업 및 시간관계상 시간이 부족하여 제자훈련에

적게 참가하기 때문이다. ⑦ 다수 교인의 제자훈련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한다. 많은 성도들은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제자훈련에 참가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불만을 갖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를 이전하거나 떠나게 된다. 초대 교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이 있었고, 양자는 모두 주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제자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소외당하는 것으로 오해한다(강영태, 1998: 41-45).

문제점	주요 내용
교역자의 시간부족	◆교역자의 제자훈련 치중, 제자훈련과 타사역 임무의 불균형
평신도의 영적성장 부담	◆지식형 성도의 불만, 목회자의 교인 영적성장의 제한경향
다수 교인의 실망, 불평	◆목회자의 소수훈련 편애인상, 다수교인의 상실감 유발
기도능력의 부족	◆성경공부의 중요성 부각, 기도생활의 소홀과 영성 부족
훈련자의 신앙성숙 미흡	◆훈련자의 영적 교만과 미성숙, 교회분열과 성도 간 이질감
훈련의 남녀 간 불균형	◆남녀 성도 간 영적수준의 차이, 여성위주 교회운영사역
제자훈련의 압박감	◆다수 교인의 제자훈련 부담, 다수 교인의 무관심 초래

<표4>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문제점(김영춘, 2006: 49)

IV.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발전방향

1. 제자훈련의 시행방향

제자훈련은 한국 대형교회의 확장과 성도의 신앙성장에 기여하였으며, 교회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유지하고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자훈련의 시행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장석천, 2009: 111-117).

① 교회의 영적도양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인 교회의 영적도양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의 운영효과는 매우 적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경우에 제자훈련의 효과가 발생하며 교회의 성장도 지속된다. 제자훈련의 우선적인 시행보다는 교회전체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은혜스러운 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② 제자훈련에는 사역과 재생산적인 훈련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바람직한 제자훈련은 전도에서 시작하여 사역 및 재생산성의 과정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사역과정에도 전도, 사역 및 성장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디 2:11-14). 바람직한 제자훈련은 구원, 양육, 훈련과 선한 사역으로 구성되고 있다(딤후 3:15-17).

③ 제자훈련과 성령사역의 접목이다. 통상 제자훈련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의 말씀사역과 성령사역이 균형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성경중심의 제자훈련에 기초를 두면서 기도운동과 성령충만의 영성사역이 강조될 때 건강한 교회성장이 가능하다. 제자훈련은 성령사역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성령역사에 의한 생명력 있는 사역현장의 경험이 필요하다(살전 1:5-6). ④ 교회 평신도사역의 활성화이다.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의 잠재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활용하도록 한다. 평신도를 목자 혹은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교회의 중심사역이 되도록 목회자가 성도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목회자의 근본적인 역할은 성도를 온전히 훈련시켜 평신도가 하나님의 부르

심에 순종하는 제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교회의 훈련과정이지 아니고 목회의 본질이다.

⑤ 소그룹을 활용한 제자훈련의 실시이다. 현대사회에서 소그룹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및 물질주의에 황폐화된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제자훈련의 훌륭한 환경이요 텃밭이다. 제자훈련은 소그룹을 통하여 만들어지며, 소그룹에 실패하면 단순한 성경공부로 전락되고 만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숙지하여 소그룹의 치유와 역동성을 제자훈련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신실한 예수님제자 육성의 비전을 중시한다. 민족복음화 및 세계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성숙한 믿음의 파수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가 적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성경의 교회론에 입각하여 목회비전 및 철학에 근거하는 평신도 제자육성의 비전을 중시해야 한다(마 29:19-20). 목회자는 교회의 비전을 분명히 설정하고, 평신도 사역자를 육성하는 성경적 비전의 수립과 시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방향	세부적 사항
교회의 영적도양 중시	◆성도의 영적도양의 준비, 성도의 말씀과 성령충만 상태의 우선전환
사역과 재생산과정 함유	◆진도, 사역과 재생산과정 포함, 예수님 사역의 모델 지향
제자훈련과 성령사역 연계	◆말씀 사역과 성령사역의 균형, 성경이해와 기도·성령충만의 경험
평신도사역의 활성화	◆평신도의 잠재력과 지도력 중시, 평신도 제자육성의 목회사역
소그룹의 적극적인 활용	◆소그룹의 중요성과 기능 파악, 소그룹 역동성의 제자훈련 활용
예수님제자의 육성비전 설정	◆목회자의 제자육성 비전수립, 평신도 지도자 육성 전략의 마련

<표5> 제자훈련의 종합적 시행방향

2. 제자훈련모델의 발전방향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는 훈련을 통하여 육성된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숙한 평신도는 교회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평신도 제자훈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여 그의 뜻대로 일하는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속화시키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제자훈련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신숙, 2011: 106-145).

(1) 제자훈련의 열매 비전

21세기 한국교회의 관심은 교회 건강성의 회복에 있다. 성경적으로 제자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며(요 15:2-3), 성령의

역사로 그 열매를 맺는다(마 28:20). 교회예배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이며 성령의 감화로 성도는 은혜를 받는다(롬 10:17; 행16:14). 성령의 열매는 성품으로 나타나며(갈 5:22-23), 여기에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 성령은 그 능력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것은 인격 및 전도의 열매를 구성하고 있다.

사역자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속하고(행 2:37-38; 엡 5:16),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에 응답하는 행위이다(대상 29:11-13).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이므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배의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설교, 기도 및 찬양 등이다.

설교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기복적, 철학적 및 문학적 내용보다 성령 의존적(행 2:14), 기도 집중적 및 성경 중심적 설교(호 6:3)에 집중해야 한다. 기도의 목적과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다. 교회문제는 개인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다(엡 6:12). 기도는 영적 전쟁상태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명령이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서 교회사역은 무익하며 효과도 없다(막 9:29). 따라서 예배 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며(엡 6:18), 기도에서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그에게 맡겨야 한다.

찬양은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고백하여 높이는 것이다(사 43:1; 시 47:6-7; 시 134:2). 예배에서 찬양은 하나님 중심의 노래가 되고, 가사는 성경교리에 적합하고 복음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배에서 찬양이 자기 도취적 혹은 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찬양의 강점은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쁨을 경험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든다(시

100:1-2; 벧후 3:18).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 준비된 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양을 통하여 성숙된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전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전도는 같이, 여러 번,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경험하는 특별한 축복이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는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영위한다(요 5:16; 요 15:26).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도와 번식의 사역이다.

(2) 제자훈련의 재생산을 위한 사역훈련

예수님은 언제나 열둘 그 중에서도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하여 훈련 하셨다. 잘 훈련된 제자들이 대위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바울이 말한 대를 이은 영적 배가 승법번식(딤후 2:2)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중요성과 훈련의 철학과 함께 승법번식의 목회철학은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심상법, 2007:202).

(3) 제자훈련의 활용

가정교회에서 평신도가 10여 명의 성도를 맡아서 목양을 담당하는 것을 가정교회라고 한다. 목회자에게만 허용되었던 목양을 평신도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가정교회의 핵심이다(최영기, 1999: 63). 평신도를 중심으로 몇몇 가정이 확대 가족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눈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 속에서 평신도는 매우 제한된 수동적인 봉사를 담당하였지만 평신도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교회의 주역으로 만든다.

일꾼이 없는 개척교회에서 목회자는 전도 및 양육자가 되어(딤후

2:1-2) 성경공부 그룹을 편성하여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개척교회에 제자훈련이 어렵다는 인식도 있으나, 오히려 문제점이 없이 쉽게 정착시킬 수 있다. 바울 → 디모데 → 충성된 사람 → 다른 사람의 예처럼 바울의 제자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척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신자를 양육하여 전도 및 재생산한다.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제자훈련의 도입은 교회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기존 성도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목사의 설교도 제자훈련의 방향에 맞게 훈련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보통 평신도 제자화에는 경험적으로 3개월의 기본이해, 3년의 교육시스템의 점진적인 변화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목회자의 철저한 기도와 말씀준비, 기존 성도와의 소통과 이해가 매우 절실하다. 제자훈련이 성도 간 분쟁, 교회분열과 분리를 초래한다면, 무리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기존조직의 활용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주일성수, 십일조 생활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활동교인을 기존조직에서 육성한다. 목회자 리더십은 교회성장의 50% 정도 차지하며, 20%의 활동교인이 80%의 교회사역에 참여하는 건강한 교회로 만든다. 제자훈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불신자의 전도와 기존 소외자의 교회정착이다.

각자의 수준과 은사에 따라 일을 분담하면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이 되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은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고 성경말씀은 목회자가 가르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은 담임목사가 하도록 분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효율성을 위해 분업을 하다보면 담임목사의 영적 권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쉽다(김명호, 2008:180).

(4) 제자훈련의 모델정립

제자훈련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의 열정 성도(행 20:31)와 예수님 사랑의 실천자(요 21:15; 롬 12:8; 벧전 5:2)이다. 제자훈련 대상자는 목회비전의 공유자, 인성·품성의 소유자, 제자훈련의 열정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마 4:22; 눅 9:23). 예비 리더의 훈련 대상자를 놓고 기도로 준비한다. 영적성장, 영혼구원 및 섬김에 관심이 있는 훈련대상자를 만들고 예비 리더를 세우며, 이것은 신앙성숙의 기회가 된다.

예비 리더의 양성에는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예비리더의 교육은 목회자 혹은 전문사역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딤후 2:3). 리더자는 훈련대상을 신앙인격의 소유자, 행동의 실천자, 교육전파의 소질자 중에서 선발한다. 훈련대상자는 예비목자 훈련과정을 이수한 리더십 소유와 소명에 헌신한 자이다. 리더는 지·정·의 측면에서 그리스도 인격중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운다.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행 8:15), 사명에 충실한 자(골 3:16) 및 하나님 은혜의 소유자 들이다. 리더에 대한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리더는 훈련대상자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지도한다. 지도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따라 생활품성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은사개발을 통하여 헌신한다.

제자훈련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빼놓을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말과 입술(고백)만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마 7:21)을 말하며, 이것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인 곧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다(심상법, 2005: 179).

(5) 지도자의 열정과 삶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와, '교인들의 삶이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제자훈련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훈련생의 선발에 관한 내용이다. 제자화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육 받을 만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지도자의 영성에 따라 양육 과정에서 훈련생이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훈련도중에 훈련생이 떠나게 된다. 따라서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서는 안 되며 훈련을 받을 만큼 준비되도록 동기부여를 받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한 자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지도자의 욕심에 따라 제자화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훈련생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동기부여가 된 자에 한하여 제자화 훈련에 들어가도록 한다.

둘째, 제자훈련 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다. 제자훈련은 사람을 키우는 훈련이므로 교과서적인 원칙을 강요하고,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만이라는 식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자신의 삶이 훈련생에게 녹아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가르쳐들려고만 할 경우 지도자의 눈높이와 훈련생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 23:3-4)'라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도자의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삶이 성경적이었을 때 훈련생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배운 대로 하기보다는 본 대로 하는 것이다. 제자화 훈련은 지도자의 삶을 보고 삶을 배우는 것이다.⁴⁾ 제자화 훈련 중에 반드시 필요한 점은 훈련생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본인의 은사를 발굴하여 교회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자화 훈련을 마쳤는데 아무런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자화 훈련은 절반 밖에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지도자의 열정이다. 목회자 뿐 아니라 평신도로서 제자훈련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열정(행 20:31)이다.

-
- 4) 고양 온누리교회 김기용 목사는 교회개척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마 되지 않은 출석 교인 중 훈련받을 만한 연령대 전원 6명을 대상으로 제자화 훈련을 시작하였다가 10개월 후 사모를 제외하고 제자화 훈련에 전원 중도 탈락하고, 게다가 일부는 아예 교회마저 떠났다고 한다. 김기용 목사는 이렇게 된 이유를 제자훈련생 선발에 대한 문제점과 지도자의 사랑부족이라고 분석하고, 이후에도 제자화 훈련을 계속하였으며, 제자화 훈련생 선발에 눈높이를 맞추고, 지도자가 제자들의 삶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돌아본 결과 이제 성공적인 제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회고한다.

발전방향	세부적 고려사항
제자훈련의 열매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령의 열매 - 성령의 역사, 영적성장, 은혜체험과 성품, 순종 ◆인격의 열매 - 성령충만, 온전한 예배, 준비된 기도, 하나님 찬양 ◆전도의 열매 - 패러다임의 변화, 회심과 전도관심·참여, 불신자 전도
재생산적 사역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역훈련 -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구원의 수단 ◆재생산의 방법 - 성경통독 준비와 실천, 성경적 설교의 강화, 경건생활(구제, 금식, 기도)의 훈련, 제자훈련의 사역 시스템 형성
제자훈련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꾼 없는 개척교회 - 목회자의 전도·양육자 역할, 성경 공부그룹 조직 ◆기존의 개척교회 - 평신도 지도자의 신자양육, 전도 및 재생산 ◆기존의 전통교회 - 성도간 소통, 제자훈련강조 설교, 단계적인 변화시도
제자훈련의 모델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자훈련의 자격 - 성령 충만자, 예수님 사랑의 실천자 ◆제자훈련의 대상 - 목회비전의 공유자, 인품성의 소유자, 제자훈련 열심자 ◆대상자의 선발 - 예비 리더와 리더 훈련대상의 선택, 리더 훈련목표
지도자의 열정과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자훈련 방법론 - 사람을 키우는 훈련, 자신의 삶이 훈련생에게 녹아들어가도록 해야 함. ◆제자화 훈련 중 훈련생의 은사 발견 - 교회의 적재적소에 배치

<표6> 제자훈련모델의 발전방향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발전방향을 취급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랑의 교회 및 교계 제자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종합적 시행방향과 제자훈련 모델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데 있다. 연구의 중요내용은 제자훈련의 이론적 고찰, 사랑의 교회 및 교계 제자훈련의 문제점,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발전방향 및 결론으로 구성되고 있다.

진정한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파에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은 교회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여 교회성장과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모델이 된다. 제자훈련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제자훈련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제자훈련의 목적과 성서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교회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 평신도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의 성공적인 모델교회로서 대표적인 교회가 되며, 그 파급영향도 크다. 서울 사랑의 교회 평신도 훈련의 핵심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다. 제자훈련의 성격은 훈련사역의 핵심이며 평신도 지도자의 양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기간은 32주 과정이다. 제자훈련의 교육내용은 제자훈련의 기초, 구원의 진리 터득,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의 정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역훈련은 사역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양육순장의 파송 사역을 수행한다. 사역훈련의 교육내용에는 새 생활의 열쇠(성령),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소그룹 모임과 리더십, 신구약 주제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제자훈련의 문제점들은 대략 교역자의 시간부족, 평신도의 영적성장 부담, 다수교인의 실망과 불평, 기도능력의 부족, 훈련자의 신앙성숙 미

흡, 제자훈련의 남녀 간 불균형, 제자훈련의 압박감 등으로 드러난다.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유지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자훈련의 시행방향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는 교회의 영적 토양 증시, 사역과 재생산과정 포함, 제자훈련과 성령사역 연계,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소그룹의 적극적 활용 및 예수님제자의 육성 비전설정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모델의 발전방향은 제자훈련의 목표, 제자훈련의 열매비전, 재생산적 사역훈련, 제자훈련의 활용 및 제자훈련의 모델정립 등을 고려하여 강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자훈련에 대한 기초이론의 제공, 연구자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 교회성장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의 측면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와 더불어 제자훈련의 신학적 고찰,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의 성장효과 분석, 제자훈련의 과급영향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영태(1998).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와 현대적 적용』.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 김명호(2008).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운동의 비교연구”. 『신학정론』. 26권1호. 164-187.
- 김영춘(2006).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박응규(2013).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의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훈련 목회”. 『성경과 신학』. 65. 103-152.
- 신숙(2011).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 심상범(2005). “신약신학과 총체적 복음사역 -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를 중심으로”. 『神學指南』. 72(3). 157-182.
- 심상범(2007). “한국제자훈련의 성경적 평가와 전망”. 『神學指南』. 290. 180-205.
- 오난영(2009). “제자훈련이 전인격적 영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랑의 교회 사역현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옥한흠(1999).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 옥한흠(2009). 『평신도를 깨운다(개정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이창진(2010).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회의 활성화방안.” 신학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 장석천(2009). “미주 한인교회의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선교학 박사학위논문.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 정병주(2003). “중간지도자 육성을 통한 교회활성화 연구.”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맥코빅.

정종진(2005). “효과적인 인적관리와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 제자훈련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최선화(2005). “한국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의 역사고찰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최영기(1999), 『가정 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황영철(1999). “교회의 올바른 역할에 관한 연구 -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Ogden Creg. “*The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2000).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Peter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서정운 역 (1984). 『성서적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출판사.

사랑의 교회홈페이지 <http://www.sarang.org>

Abstract

Development Directions of Layman's Training for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Jo Jaeshin*(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g Bonghyun*(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layman's training for church growth in Korea.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layman's training in the Korean church, and to suggest its crucial development directions for its growth.

Problems of layman's training in the Korean church include as follows: busy chief pastor; decline in spiritual growth of layman; disappointments and complaints of church members; lacking prayer's spiritual ability; immature spirituality of Jesus's followers; spiritual pressure of layman, etc. It is very important to suggest and implement important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churches and the spiritual mutuality of Christians in Korea. The development strategies are included as follows:

emphasis on the spiritual soil of the church and reproductive processes in church ministry; connection between disciple's training and the Holy spirit; activation of layman's ministry; encouraging small group's activities in the church; set-up of clear church's vision, etc.

Key Words: Layman's training, disciple's training, growth of Korean church, spiritual growth of church, layman's ministry